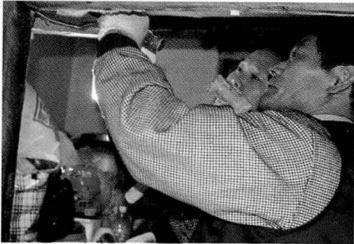


성남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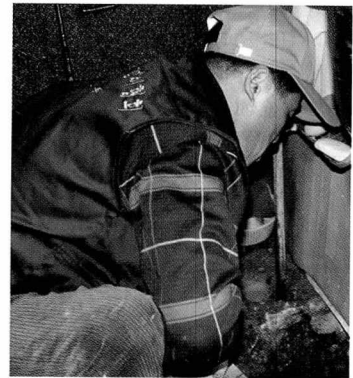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를



성남 지부(지부장 남예진)는 지난 11월 16일 시내 수정구 태평1동에 소재한 독거노인(장애우)가옥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 행사는 태평1동 사무소의 요청으로 성남지부 신건현 부지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였는데 남예진지부장은 “성남지부회원 대다수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도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농촌일손돕기’에서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과수원 일손돕기에도 참여하여 농민들의 일손을 도우며 수확의 기쁨도 같이 나누었다.



마포지회

‘집수리 자원봉사’로 큰사랑 실천

김도천 대표(만듬공사)

마포 지회 김도천(59세, 만듬공사, 마포구 용강동 거주)씨는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집수리봉사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만듬공사 김도천 대표는 닥트, 함석, 창, 설비업을 38년 동안 천직으로 알고 외길을 걸어 온 김도천씨는 평소에도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정시에 참석 하는 사람이다. 항상 20~30분 먼저 도착하여 작업 준비를 하고 집수리 단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법이 없다. 그의 성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엿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집수리 봉사를 시작하여 도배 장판 교체, 지붕 보수공사, 연탄보일러 설치 공사 등 다양하게 참석하였다.

대상 가구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수리 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도천 씨는 말끔히 수리된 집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때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말한다.

“합정동 노금례 할머니는 집수리 봉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단원들 모습이 사라질 때 까지 손을 흔들고 계실 때면 마



음이 짙하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보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조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김도천 회원님께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집수리 봉사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마포지회

이웃 돕는 손길, '월척' 낚는 기쁨



“안녕 하세요! 김주임님”

한달에 두 번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는 손님이 있다. 미소년처럼 곱상한 얼굴에 깨끗한 피부가 아무리 봐도 집수리봉사단의 단장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다. 마포구 '집수리봉사단'의 하재원 단장! 거칠고 우악스런을 거리는 짐작은 순간 빛나가버렸다.

A4 용지에 활동사진 전·중·후와 수리내용을 단정히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내밀며 세대별 수리대상자를 일일이 열거하며 기억하는 하재원 단장은 영남없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다. '월척 낚는 기쁨'이란 제목에는 의미가 담겨있다.

“자원봉사 때문에 좋아하는 낚시도 다 팽개쳤습니다.” 하재원 단장은 자타가 알아주는 '낚시광'이다. “자원봉사가 너무 좋아 1주일에 한 번씩 꼬박 즐기는 낚시도 안합니다. 대신 집수리 봉사하면서 월척을 낚죠!” 봉사에 매료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2년 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월척을 낚는 기쁨으로 집수리 봉사를 나간다.

4평 남짓한 공간에 오래된 가구들이 발 디딜 틈도 없는

망원동 연립주택에 하재원 단장을 주축으로 한 집수리 봉사단이 떴다. 노후되고 낡은 도배와 장판은 금새 '쓰익'하는 소리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 주름진 이차랑 할아버지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해맑아진다.

“고마우이! 고마워! 누가 이렇게 와서 늙은이 방을 도배해 주겠어. 너무 고마워!” 아들이 없어 늘 허전해하시던 사십이 넘는 장애인 딸과 함께 사는 최이숙 할머니는 고마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

물을 글썽인다.

지난해 10월, 14명이 의기를 투합하여 집수리 봉사단을 조직하였다. 지금까지 총 32가구를 수리해 준 하재원 단장과 단원들은 모두 설비, 도배, 창호 등에서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며 자신들의 사업체를 가지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홀로 사는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도배, 보일러, 전기수리 등을 해오고 있다.

하재원 단장이 처음 봉사를 하겠다는 계기도 남다르다. “딸과 함께 선유도공원에 연날리기를 하러 갔다 우연히 만난 자원봉사들에게 감동을 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감동을 받은 하재원 단장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전국보일러협회에 연락을 취해 '집수리 봉사단'을 조직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집수리 봉사는 노후 되어 붕괴 직전인 대흥동 김금순 할머니의 담장보수를 시작으로 도배, 장애인용 계단설치, 출입문 보수, 연탄보일러교체, 전선 및 전등·가스·배선 등을 교체하여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전과 환경개선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지부

남한산성 문화탐방 및 환경정화활동



성남 지부(지부장 남예진)는 지난 11월 10일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실시한 'e-푸른 성남을 가꾸기 위한 남한산성 문화탐방 및 환경정화활동'에 참가 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나날이 훼손되어 가는 자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타 영역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보교류는 물론 봉사자들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보다 나은 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활동에는 자원봉사 기관과 단체 그리고 중·고등학교생 1,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문화해설사의 문화해설과 오물수거를 통한 환경정화활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남한산성 일대를 양지공원, 중앙로, 약사사, 백련사 등 4코스로 나누어 해오름 봉사단과 천자봉 기동대로 구성된 씨포



터즈의 안내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성남중앙병원 천사데이 의료봉사팀이 대민봉사활동을 펼쳐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e-푸른 성남을 가꾸기 위한 남한산성 문화탐방 및 환경정화활동은 성남시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결속을 강화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산 교육의 장이 되었다.